

## 미중관계: 통합분석예측 모델 시론\*

이호철 ■ 인천대학교\*\*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미중관계 분석과 예측을 위한 '구조', '과정', '행위자' 수준에서의 통합적 접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예측 결과, 구조적 차원에서 미중관계는 세력전이와 진행 중이고 재균형과 역균형의 세력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상충적인 전략목표가 추진되고 있다. 미중관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미중간 과정의 국제정치에서는 외교가 재개되고 있고, 대화채널이 모색되고 있으며, 무역추이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 차원에서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는 외교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의 국제정치에 의해 중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행위자 차원에서는 미중의 리더십이 상호간에 '현상변경 도전국가'로, '중국부상 견제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를 단기적으로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주제어: 통합분석예측 모델, 세력전이, 세력경쟁, 과정의 국제정치, 현상변경 도전국가, 중국부상 견제국가,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

## I. 문제제기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는 미중관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간 세력전이 가능성, 세력전이에 따른 미중간 충돌 혹은 전쟁 가능성,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전략과 중국의 '역균형'(counterbalancing) 전략, 전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축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지속 혹은 전환 가능성 등의 요인들은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에 심

\* 이 연구는 인천대학교 2020년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E-mail: hochul82@gmail.com)

대한 충격을 미칠 것이다. 미중관계가 우호협력, 경쟁과 갈등, 적대적 대립 등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국제정치의 큰 판이 결정될 것이고, 지역 국제관계나 국가의 대외전략은 이 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안토니 블링컨은 이러한 미중관계의 결정적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첫 언론 브리핑에서 “미중관계가 향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이제 비밀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Blinken 2021).

미중관계는 글로벌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의 안보지형에도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 남북한 관계, 한반도의 분단과 미래 통일,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 한중일 관계, 동중국해와 중일관계 등 역내 안보지형에도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더구나 미중관계가 전략적 갈등이나 적대적 관계로 악화될 경우 한국은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적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의 대외관계 현실에서 한국 외교의 전략적 모호성이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중관계의 전개에 따라 어떻게 국가이익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 외교의 매우 힘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중관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복합적 작동의 결과로 설정되는 미중관계의 전개 양상을 예측하는 일은 21세기 전반의 국제정치를 전망하고 나아가 동아시아 안보지형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미중관계를 이념적 소신이나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엄정하고 객관적인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은 국제정치의 미래, 한반도 평화, 한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다.

미중관계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미중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단편적’ 분석이라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중간 세력전이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피하지 못하고 ‘예정된 전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나(엘리슨 2018; Allison 2015), 미중간 높은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으로 인해 군사적 동맹을 추진하는 등의 ‘적대적 균형전략’이 전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Han & Paul 2020), 시진핑 지도부의 등장으로 중국의 대외전략이 바뀌었고 이로 인해 미중간 전략경쟁이 촉발되었다는 주장(Haass et al. 2019) 등이 모두 단편적 분석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분석들이 미중관계의 어느 일면을 강조하고 밝혀내는 데는 학술적 기여가 있으나 거기에 근거한 미중관계의 분석이나 예측은 과장되거나 왜곡되거나 혹은 실제와 괴리되는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양국의 행위자 수준(actor level), 과정의 수준(process level), 구조적 수준(structural level)에서 주요 변수들을 검토하고, 이들 수준들의 상호작용과 시계열적 영향력을 판단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미중관계의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양상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마이클 맥폴(2020)은 미중관계가 신냉전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 과정, 행위자의 세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실제적이고 정책적인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해보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비록 학술적 간명성(parsimony)을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미중관계의 실제적 양상을 드러내고 정책결정에 실질적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여기서 제안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서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해보는 것이 이 연구의 이차적 목적이다.

## II. 통합분석예측 모델

미중관계는 ‘행위자’, ‘과정’, ‘구조’의 세 수준의 복합적 작동의 결과로 설정될 것이다.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힘의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구조적 변수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정치과정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행위자의 가치, 의도, 인식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중관계를 이들 어느 하나의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단편적인 결론에 이르거나 미중관계의 특정 부분을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다 실제적인 미중관계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세 차원이 미중관계 형성에 미치는 복합적인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행위자 차원은 리더십, 정치체제, 가치지향, 대외전략, 인식과 의도 등을 포함하고, 과정의 차원은 미중간에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과정, 즉 외교,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채널과 더불어 경제교류 등을 포함하며, 구조 차원은 미중간 힘의 관계가 핵심요인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세 수준 통합적 분석모델(three-level integrated model of analysis and prediction)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미중관계 = $a$ (구조) + $b$ (과정) + $c$ (행위자)

여기서, 가중치  $a$ ,  $b$ ,  $c$  는 세 차원의 시계열적 상대적 영향력을 의미하고, 기호 + 는 세 차원간 상호작용 효과, 즉 상쇄 혹은 증폭 효과를 의미한다. 미중간 세력관계는 세 차원에서 가장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리더십이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은 가장 단기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세 차원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a > b > c$  의 순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들 상이한 분석수준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구조적 차원에서 세력관계의 변동은 과정의 차원에서 무역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sup>1)</sup> 행위자 차원에서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Ross 2020, 64). 마찬가지로 켄트 칼더(2014)가 지적하듯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지정학적 세력정치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고, 미국 주도의 지정학적 세력정치에 구조적 변화가 진행된다면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한 불안정하게 된다. 즉 구조 차원의 변화는 과정 차원의 변화를 가져온다. 역으로 상대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과 전략은 양국간 무역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미중간 세력전이에 따른 구조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세 차원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보다 실제적인 미중관계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1>은 세 수준에서의 주요 변수들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구조 수준에서 세력정치와 세력전이,<sup>2)</sup> 과정의 수준에서 외교와 대화채널, 무역 추이, 행위자 수준에서 리더십과 인식, 전략 등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각각의 분석수준에서 주요 변수들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수준간 시계열적 상대적 영향력과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여 통합적인 미중관계의 실재를 규명한다.

- 
- 1) 세력관계가 안정적인 경우 무역 당사국들은 무역의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 만으로도 만족하겠지만, 세력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무역 당사국들은 무역의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Gilpin 1987, Chapter Five).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중간 무역분쟁은 미중간 진행중인 세력전이 하에서 궁극적으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상대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현실의 인식에서 촉발된 것이다.
  - 2) 심사자가 지적하듯이 미중간 기술패권경쟁 또한 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변수이나 이 연구에서는 세력정치와 관련된 변수로 한정하고자 한다.

〈표 1〉 분석수준과 주요변수

	구조	과정	행위자
주요변수	세력정치	외교	리더십
	세력균형	대화채널	이념/가치/규범
	세력전이	국제기구	정체성
	지정학	무역	인식/전략
	패권경쟁	인적교류	정치체제/국내정치

### III. 미중관계의 범주

미중관계가 전개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이 연구에서는 미중관계가 동반자관계(partnership), 협력관계(cooperation), 경쟁관계(competition), 갈등관계(conflict), 적대관계(adversary)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복합적 관계로 전개될 것으로 상정한다.

이 연구에서 동반자관계는 미국과 중국이 국제규범을 공유하고 국제질서를 공동 관리하는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협력관계는 국제정치의 주요 의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NPT, UN, WTO, 세계경제, 기후 변화, 해양질서,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면서 국제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경쟁관계는 세력정치, 지정학, 세계경제, 무역, 핵심 기술 등의 분야에서 국가이익의 경쟁적 확장이 전개되는 양상의 관계를 의미한다. 갈등 관계는 국제규범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약하고 세력정치, 세계경제, 핵심 기술 등의 분야에서 정합게임(positive sum game)이 아니라 영합게임(zero sum game)이 주도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의 관계를 의미한다. 적대관계는 국제질서 전반에 대한 이념과 규범이 대립하고 현상유지와 현상변경으로 충돌하면서 전쟁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미중관계의 실체는 어느 일면의 양상만이 지배적이기 보다는 두 세계의 양상이 동시에 그리고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적일 것이다. 예컨대 동반자-협력관계, 협력-경쟁관계, 경쟁-갈등관계, 갈등-적대관계 등의 중첩적 양상으로 전개되거나 세 개의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블링

권 국무장관(2021)은 미중관계를 이슈별로 경쟁, 협력, 적대의 세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는 경쟁 양상이 전개될 것이고, 군사와 이념 분야에서는 적대 상황이 전개될 것이고, 기후변화, 비확산, 감염병 등 글로벌 이슈 분야에서는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IV. 미중관계의 구조적 차원: 세력전이와 세력정치

구조적 차원은 국제체계에서 세력의 상대적 분포를 변경시키는 광의의 세력정치(power politics)와 관련되는 요인들을 포괄한다. 군사력을 증강시키거나 동맹체계의 구축을 통해 세력균형이나 세력우위 혹은 세력전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세력정치 전반을 포함한다. 윌즈(1979)를 비롯한 신현실주의자들은 세력의 상대적 분포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야말로 국제정치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강조한다. 세력정치의 결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미중관계에 있어 구조적 차원의 영향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는 국제체계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지난 20년간의 세력변동은 그레이엄 앨리슨이 지적하듯이 미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였다. 미국은 1950년에 세계 GDP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반해 1991년에는 4분의 1로, 2020년에는 7분의 1로 줄었다. 그 결과 미국 중심의 단극체계는 종식되었으며, 지금의 국제체계에는 미국만의 영향권이 아닌 다수의 영향권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앨리슨(2020)은 분석한다.

미어샤이머는 2016년경 국제체계는 단극체계에서 다극체계로 전환되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계는 종식되었으며 그러한 세력관도에 근거하고 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 또한 와해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까운 미래의 국제질서는 미국 주도의 제한적 현실주의 질서와 중국 주도의 제한적 현실주의 질서가 중첩되는 현실주의 국제질서로 전환되고 있는 한편 그가 말하는 ‘얕은 국제질서’는 유지되어 최소한의 국제협력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결론적으로 미중은 냉전시기 미소간 경쟁과 유사한 전략경쟁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Mearsheimer 2019).

미중간 세력관계의 변동과 관련하여 미중간 세력전이(power transition)가 실현될 것인가, 실현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미중관계의 미래를 예측하고 국제정치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쟁점 사안이다. 세력전리로 인한 미중간 군사적 충돌 혹은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점

이 핵심 쟁점이다. 세력전이이론에 따르면, 만약 부상하는 국가의 힘이 기존 패권국가의 힘을 따라잡게 되고(overtaking)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국제질서에 불만족하다면(dissatisfied), 부상하는 국가와 패권국가 간에는 심각한 군사적 갈등 혹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Rapkin & Thompson 2003; Tammen et al. 2000).

세력전이가 진행되면 국제체계는 불안정하게 되고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국제질서에 불만족하여 현상변경을 추진하게 되면 결국 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이스 시대의 사학자 투키디데스가 약 2,400년 전 펠레폰네수스 전쟁이 기존 패권국 스파르타와 신흥 강대국 아테네 간에 세력전이로 인한 전쟁이었다고 설명했듯이, 21세기 미국과 중국이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져들 것인가? 엘리슨은 세력전이이론의 관점에서 미중간 “예정된 전쟁”(destined for war)을 예측한다(엘리슨 2018; Allison 2015). 엘리슨은 15세기 말에서 현재까지 16번의 세력전이 사례 중 4번을 제외하고는 전쟁이 발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제기한다.<sup>3)</sup> 실제 미중관계는 세력전이가 실현되어 ‘예정된 전쟁’으로 나아갈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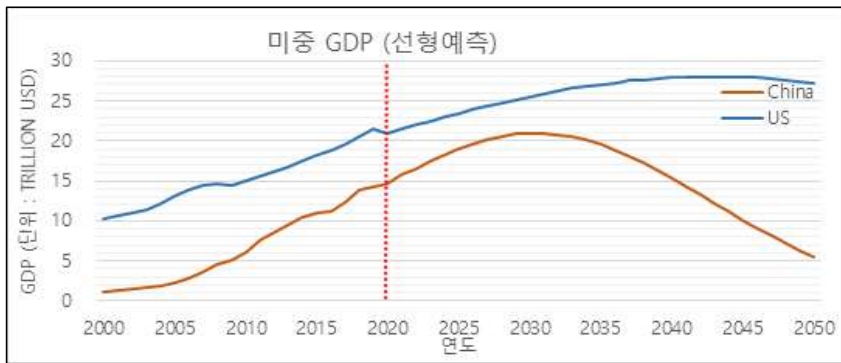
미중간 세력전이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중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추이를 분석하고 예측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력은 GDP 추이를, 군사력은 군비지출 추이를 분석하여 예측해본다. 아래 <그림 1>은 미중간 GDP 추이를 보여준다. 2020년까지는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기반한 GDP 추이이고, 이후 2050년까지는 2000년에서 2020년간의 GDP 증가율의 선형예측에 기반한 GDP 추이를 보여준다. 중국의 GDP 평균증가율이 미국 보다 크게 높지만 증가율의 감소폭 또한 미국 보다 높아 2030년까지 미국을 추격하지만 이후부터는 격차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sup>4)</sup> 아래 <그림 2>는 미중간 군비지출 추이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는 세계은행의 데이터에 기반한 군비지출 추이이고, 이후는 2020년까지의 증가율 선형예측에 따른 군비지출 추이를 보여준다. 2040년 이후 중국의 군비지출이 미국에 근접하고 2044년 이후 근접 추월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3) 다음 참조: (<https://www.belfercenter.org/thucydides-trap/resources/case-file-graphic>. 2022/02/05 검색).

4) 선형예측에서 중국은 2031년부터, 미국은 2044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된다. 중국이나 미국이 유럽 국가 등 선진경제의 경험처럼 최소 1.5%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미중의 GDP 추이는 2031년 이후 미국의 우위에서 거의 평행선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군비지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44년 미중 군비지출이 거의 동일한 규모로 근접하고 이후 평행선으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종합하면, 2030년까지 미중간에는 경제력과 군사력에서 치열한 세력경쟁이 진행될 것이고 2040년 이후 군사력에서 중국이 미국에 근접 우위를 보이는 ‘부분적 세력전이’가 실현될 것으로 예측된다.<sup>5)</sup> 따라서 2040년까지는 미중간 세력전이가 진행되면서 이를 지연 혹은 역전시키거나 혹은 가속시키기 위한 양국간 치열한 세력정치가 전개될 것이다.

〈그림 1〉 미중간 GDP 추이



\* 2020년까지 세계은행 데이터, 이후 선형예측에 기반한 예측 GDP

\*\* 데이터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CN-US>

〈그림 2〉 미중간 군비지출 추이



\* 2020년까지 세계은행 데이터, 이후 선형예측에 따른 예측 군비지출

\*\* 데이터 출처: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MS.MIL.XPND.CD?locations=CN>

5) ‘부분적 세력전이’가 실현되는 것만으로 세력전이이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현상변경, 갈등과 충돌, 전쟁으로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세력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의 한 국면일 뿐이다.



미중간 세력정치는 동아시아, 인도태평양, 남중국해에서 가시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기울어진 세력균형을 복원하려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이 지역에서 세력우위를 실현하려는 중국의 ‘역균형’ 전략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아래 <그림 3>은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재균형 전략의 주요 지역과 내용을 지도 위에 표시한 것이다. 미국은 중앙아시아 5개 국가와의 다자회의(C5+1)를 제외하고는 주로 양자간 협상의 방식으로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동맹강화(일본), 방위안보협력(인도네시아), 기지사용(필리핀), 해상안보 능력 강화(필리핀), 주둔병력 증강(호주), 무기금수 해제(베트남), 제재해제(미얀마), 군수 상호지원(인도), 군사기술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인도),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아래 지도가 입증하듯이 재균형 전략의 최종결과는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encirclement)으로 귀결되고 있다.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중국의 부상과 세력 확장을 차단하거나 견제하여 역내 기울어진 세력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치밀하고 일관된 지정학적 세력정치로 추진되어 왔다(이호철 2017).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도태평양으로 그 지리적 공간을 확장하였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큰 변화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White House 2021).

<그림 3> 미국의 재균형 전략



출처: Lee 2017; 배경지도 출처: Perry-Castañeda Map Collection, UT Library Online,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www.lib.utexas.edu/maps/asia.html>.

시진핑 주석은 2013년 9월 카자흐스탄 방문 중에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를 발표하였다.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운송 및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여 무역투자, 금융협력, 문화교류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13년 10월에는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 구상을 발표하였다. 중동, 아프리카, 유럽,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해상 교역로에 항만과 인프라 건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역과 투자를 촉진시켜 공동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그림 4> 참조).

(그림 4) 중국 일대일로외의 지경학과 지정학



출처: 『중앙일보』 2017년 3월 15일, 26쪽. <http://news.joins.com/article/21370299#none>.

일대일로는 우선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위축되기 시작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수출주도에서 수요창출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면서 육상과 해상 네트워크 구축으로 거대한 수요창출을 통해 성장을 지속한다는 지경학적 성장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지경학적 경제성장 전략 그 이상의 지정학적 전략을 내재하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에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편입시킴으로써 ‘중국 중심의 경제질서’를 구축하고, 아시아 안보는 아시아가 주도해야 한다는 ‘신안보론’에 입각해서 ‘아시아

주도 안보질서'를 촉구함으로써, 일대일로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맞대응한다는 전략적 의도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Swaine 2015).<sup>6)</sup> 2010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재균형 전략에 대한 '역균형 전략'의 일환인 것이다.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을 뚫고 서진해나가는 지정학적 전략이 깔려있는 것이다(이호철 2017; 薛力 2014).

남중국해는 미국의 재균형과 중국의 역균형이 충돌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이 지역을 군사화하여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군사전략의 거점을 구축하고 있고,<sup>7)</sup>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차단하고 역내 세력균형의 복원을 추진하면서 미중간 군사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이호철 2017; 钟飞腾 2021).<sup>8)</sup> 다른 한편, 미중간 재균형과 역균형의 세력정치가 전개됨에 따라 미국에 대한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고, 따라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또한 비례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미중간 세력경쟁에서 타이완은 또 하나의 갈등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현상유지 정책과 중국의 현상변경 가능성이 충돌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 8월 펠로시(Nancy Pelosi)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이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는 이러한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약하면, 구조적 차원에서는 2040년 전후까지 세력전이가 진행되면서 이를 지연, 역전, 혹은 가속시키기 위한 미중간 치열한 세력정치가 전개되고 있다. 미중간 세력정치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기울어진 세력균형을 복원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역균형 전략으로 표출되면서 미중간 세력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간 진행 중인 세력전이와 재균형과 역균형의 세력경쟁은 미중관계에 장기적인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할 것이다.

## V. 미중관계: 과정의 국제정치

미중관계의 정치과정은 미중간에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대화채널과

6) Swaine(2015)은 일대일로를 중국판 '마샬플랜'으로 간주한다.

7) 존 애컬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2022년 3월 20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 남사군도의 수비, 미스치프, 파이어리 크로스 등 3개 인공섬에 대함대공 미사일, 레이저와 전파방해장치, 전투기 등을 배치하여 군사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조선일보』 2022/3/22).

8) 钟飞腾(2021)도 미중간 남중국해 갈등을 지정학적 세력정치에 따른 전략적 경쟁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중국이 이 지역을 군사화함으로써 미중간 직접적인 군사적 갈등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다.

외교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미중간에 과정의 국제 정치가 제도화되어 있다면 행위자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대적 인식이나 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력경쟁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과정의 국제정치에는 또한 미중간 경제교류를 통한 상호이익의 실현 또한 포함될 수 있다. 양국 간 무역은 상호간에 비교우위를 실현시켜 양국 모두 경제적 이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양국관계를 갈등관계나 적대관계로 이끌어 가는 비용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쟁, 갈등, 적대관계를 완화시킬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무역은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던 것처럼 무역은 분명 ‘평화효과’(pacifying effect)가 있다.<sup>9)</sup> 여기서는 미중간 대화채널, 외교, 무역을 중심으로 미중간 과정의 국제정치를 검토한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까지 미중간에는 공식 대화채널이 가동되어 왔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의 제안으로 2005년부터 미중 ‘고위급대화’(the US-China Senior Dialogue)를 시작했고, 다음 해 2006년부터는 미중간 ‘전략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시작하여 양국간 지역과 글로벌 차원의 전략과 경제 협력을 모색하였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2009년부터 두 채널의 대화를 통합하여 ‘전략경제대화’(S&ED)를 열어 양국간 협력을 모색하여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전략경제대화를 ‘외교안보대화’, ‘포괄적 경제대화’, ‘법집행과 사이버안보 대화’, ‘사회문화대화’ 등 네 개의 별도 대화채널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네 개의 대화채널은 2017년 단 한 차례 개최된 이후 중단되었다(Tiezzi 2018).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중간 첫 고위급회담이 2021년 3월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홍콩, 신장, 티벳 문제 등에서 중국이 국제질서의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비난과 미국식 민주주의가 ‘코카콜라’인가라는 양제츠 주임의 반론에 이르기까지 험악한 분위기로 회담이 시작되었으나, 양측은 이란, 아프카니스탄, 북한, 기후위기 등에서 협력의 어젠더를 공유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미중간 과정의 국제정치가 재개될 가능성은 열렸다고 볼 수 있다.<sup>10)</sup>

바이든 행정부의 2번째 미중 고위급회담이 2021년 10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9) 그러나 양국관계가 구조적 차원이나 행위자 차원에서 경쟁관계와 적대적 인식으로 약화될 경우 무역의 ‘평화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비교우위에 따라 실현되는 절대적 이득보다는 경쟁우위에 의한 상대적 이득의 크기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 다음 참조: (김예경 2021; Department of State, USA 2021; 中国外交部 2021).

열렸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에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연내 화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2021년 11월 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관계법’, 3개의 미중공동성명, ‘6개의 보장’(Six Assurances)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대만 해협과 상공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비행,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촉구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간 소통과 협력, 미중관계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장영희 2022). 미중간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중 정상이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책임있는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화채널의 복원에 공감했다는 점은 2018년 이후 단절있던 과정의 국제정치를 복원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미중관계의 전개에 긍정적이다.

위에서 논의했듯이 경제교류 또한 과정의 국제정치의 중요한 한 측면이다. 여기서는 특히 미중간 무역추이를 분석한다. 아래의 <그림 5>는 1985년에서 2021년까지 미중간 무역 추이를 보여준다. 미중간 무역량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중간 무역량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미중간 무역량(수출+수입)은 1985년 77억 달러 정도에서 2021년 약 6,570억 달러를 넘어 36년간 약85배 증대되었다. 다른 한편,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수출량보다는 수입량이 더욱 급속하게 증대하여 2021년 미국은 중국과의 상품교역에서 약 3,5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역으로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규모인 외환보유고의 핵심자산으로 축적되어 왔다. 무역의 평화효과를 따른다면 이러한 미중간 무역추세는 미중간 경쟁과 갈등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미중간에 과정의 국제정치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자 곧바로 알래스카에서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고, 중국 외교부는 미중간 전략대화를 재개하여 상호협력과 상호이익을 실현하여 미중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자는 입장을 발표하였다(中國外交部 2021). 중국의 전문가들도 알래스카 고위급회담이 미중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刁大明 2021; 黃仁偉 2021; 朱峰 외 2021). 다른 한편, 트럼프 행정부 기간 감소세를 보이던 무역추이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무역의 ‘평화효과’가 다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림 5〉 미중간 무역추이



출처: US Census Bureau. <https://www.census.gov/foreign-trade/balance/c5700.html>.  
연도별 데이터를 필자가 재구성, 위는 무역량, 가운데 수입량, 아래는 수출량.

## VI. 미중관계의 행위자 차원: 리더십, 인식과 전략

리더십, 상호인식, 전략 등 행위자 차원의 요인들은 구조적 차원에 따른 전략적 경쟁을 증폭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행위자 차원 요인들은 과정의 국제정치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위축시킬 수도 있다. 행위자 차원의 요인들은 리더십 교체 주기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변수들에 비해 비교적 단기적 혹은 중기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는 미중의 공식 문건과 최고지도자의 연설을 분석하여 리더십, 전략,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미중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시진핑 이전의 중국 지도부는 덩샤오핑이 제시한 ‘도광양회’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비교적 온건한 발전목표를 추진해왔다.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통한 중국공산당의 집권능력을 유지한다는 온건한 목표를 추진하면서 기존의 국제질서를 수용하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대외전략을 추진해왔다. 말하자면 ‘도광양회’ 리더십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Lee 2013).

국가의 힘이 커지면 그 국가의 발전목표나 대외전략 또한 확장된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전의 도광양회 리더십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대담한 발전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중국의 꿈’, 중국이 원하는 미중관계의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신형대국관계’, 당대의 육상 실크로드를 복

원하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지정학적 공간을 확장한다는 ‘일대일로’ 전략, 남중국해의 군사화 및 해군력의 증강 등에 이르는 확장된 대담한 국가전략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sup>11)</sup>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대국외교’ 리더십으로 확연하게 전환한 것이다(习近平 2014).

미국의 백악관이나 국방부의 국가안보전략은 구조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중간 세력변동에 대한 전략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세력균형이 불안정하다는 인식하에 미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이 이 지역에서 세력우위를 차지하려는 현상변경을 차단하는데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White House 2017). 마찬가지로 2년 뒤인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중국을 ‘단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우위를 추구하고 장기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세력우위를 추구하는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주목하면서 장거리 투사력과 핵능력의 고도화, 사이버 공간, 우주, 전자전에서의 작전능력을 추진, 중국 주변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A2/AD 능력의 증강, 남사군도에 대한 크루즈 미사일과 지대공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여 군사기지화, 센카쿠/조어도 해역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 등을 지적하고,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행동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The Department of Defense, USA 2019).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하자 곧바로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세력분포가 변동하면서 새로운 위협이 제기되고 있다는 전략적 인식하에, 특히 중국을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능력을 동원하여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계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경쟁국가’(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한 세력분포를 복원하여 적대세력들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위협하거나 국제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핵심 지역을 지배하려는 시도를 차단하여 강력한 민주주의 동맹, 파트너십, 다자기구와 규칙에 근거한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11)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18전대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한 연설에서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인용하면, “나는 굳게 믿습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에 소강사회 완성이라는 목표가 꼭 실현될 것입니다. 중국 건국 100주년(2049년)에는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화된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라는 목표가 실현되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꿈이 꼭 이뤄질 것입니다”(조영남 2013, 21).

(White House 2021).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미국은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을 현상변경 국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경쟁국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은 미국을 중국의 부상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가로막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집권 70주년 기념사에서 “누구도 중국의 부상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习近平 2019). 행위자 차원에서 양국의 리더십, 전략, 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미중관계는 적대적 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경쟁관계에서 갈등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sup>12)</sup>

행위자 차원에서 국내정치적 요인 또한 미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주석은 2023년 통상적인 2번의 주석직 임기가 만료되나 2018년 임기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세 번째 주석으로 연임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대미전략과 미국과 대등한 위상으로서의 중국이라는 이미지가 필요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강력한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필요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를 실현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서, 중상주의적 통상정책과 권위주의적 국가주도 성장전략을 배격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규범과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미중의 국내정치적 요인은 단기 혹은 중기에 걸쳐 미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VII. 미중관계 분석결과와 예측

세 수준에서의 미중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간 세력정치와 관련되는 구조적 차원에서는 세력전이 진행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GDP와 군비지출 장기 예측에 따르면 2044년 전후 부분적 세력전이가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미중은 진행 중인 세력전을 지연시키거나 가속시키기 위한 치열한 세력정치를 펼치고 있다. 미중간 세력정치는 특히 인도태평양,

12) 리즈 이코노미(Liz Economy)는 행위자 차원에서 시진핑 지도부가 공세적 대외전략을 추진하면서 미중간 전략경쟁이 시작되었다고 지적하지만, 미중간 전략경쟁은 구조적 차원의 미중간 세력변동에 기인하는 것이고, 리더십의 인식과 전략에 따라 증폭되거나 완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실제에 부합할 것이다(Haass et al. 2019).



남중국해, 타이완 지역에서 재균형과 역균형의 지정학적 세력정치로 전개되고 있다. 미중은 세력경쟁에서 ‘지역균형’과 ‘지역우위’라는 상충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미중간 과정의 국제정치는 부시 행정부 이후 고위급대화, 전략경제대화 등 공식적 대화채널이 가동되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2017년 대화채널이 한 차례 가동된 이후 2018년 이후 중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2021년 고위급회담과 정상회담을 재개하였고 대화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미중 정상이 확인하였다. 또한 미중간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중간 무역추이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행위자 차원에서 미중의 리더십, 전략과 상호인식의 관점에서 볼 때,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미국은 백악관이나 국방부의 공식 문건에서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을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국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적 경쟁국가’로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은 미국을 중국의 부상과 ‘중국의 꿈’을 가로막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 행위자 차원에서 볼 때 미중관계는 적대적 관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세 번째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국내정치적 필요성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래의 미중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중국의 성장동력이 지속되고 미국의 상대적으로 느린 성장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2040년 정도까지 미중간 세력전이가 진행되면서 양국간 세력경쟁으로 인한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가 장기적 대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미중관계가 갈등관계로 악화될 수 있는 근거는 미중간 세력경쟁의 지리적 공간이 특히 남중국해 지역에서 충돌되기 때문이다. 타이완에 대해서도 중국의 현상변경과 미국의 현상유지가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 미중간 세력전이와 세력경쟁은 미중관계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할 것이다.

미중간 과정의 국제정치는 외교가 재개되고 있고 대화채널을 복원할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확인하고 있어 ‘경쟁’과 ‘갈등’의 장기적 추세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추이는 민간부문의 경제적 이익과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미중관계를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완화시키는 압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과정의 국제정치가 세력정치에 기반한 ‘경쟁’과 ‘갈등’의 장기적 추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나 중기적 관점에서 ‘갈등’의 위험성을 완화시키거나 갈등을

지연시키는 평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위자 차원에서는 미중의 리더십이 상호간에 ‘현상변경 도전국가’로, ‘중국 부상 견제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상변경 도전국가와 중국부상 견제국가라는 상호인식이 상호배타적이어서 갈등과 충돌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에 표면화될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이 실현될 때까지 증폭될 것이고, 장기집권이 무산되거나 실현된 이후에는 ‘경쟁’과 ‘갈등’의 관계가 조정되고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3년 이후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경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시도될 것이고, 양국간 세력관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구조적 차원의 장기적 추세를 역전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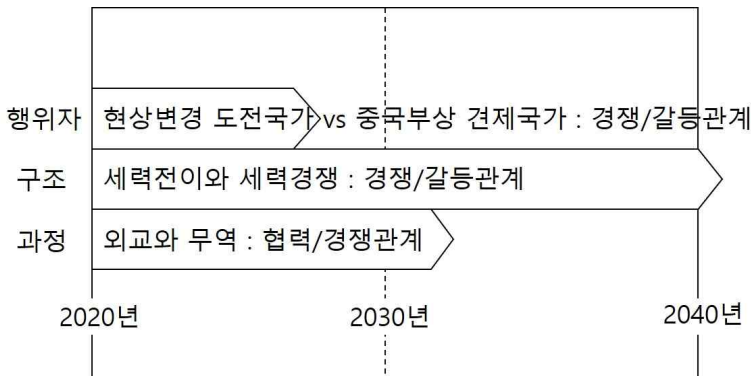
아래의 <표 2>는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와 미중관계 예측을 요약한다.

<표 2> 미중관계 분석결과와 예측

	구조	과정	행위자
주요변수	세력전이	외교/대화채널	리더십
	세력정치	무역	인식/전략
	전략목표		국내정치
분석결과	진행 중	중단 → 재개 복원 가능성	‘대국외교’ 글로벌 리더십 복원
	‘재균형’과 ‘역균형’의 세력경쟁 진행 중	증가세로 전환	중국부상 견제국가 현상변경 도전국가
	상층 지역우위 ↔ 지역균형		강경 리더십, 미국과 대등한 위상 ‘America is back’ 결집
미중관계	경쟁	협력/경쟁	협력/경쟁
	경쟁/갈등	협력/경쟁	경쟁/갈등
	경쟁/갈등		경쟁/갈등
시계열 상호작용	장기적 경쟁/갈등	중기적 경쟁/갈등 완화	단기적 경쟁/갈등 증폭/완화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2040년 정도까지 미중간 세력전이가 진행되면서 양국 간 세력경쟁으로 인한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가 장기적 대세가 될 것이다. ‘경쟁’과 ‘갈등’의 장기적 미중관계는 외교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과정의 국제정치에 의해 상당 기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리더십의 인식과 전략에 따라 경쟁과 갈등의 미중관계는 ‘갈등’과 ‘적대’의 관계로 증폭되거나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그림 6>은 미중관계의 예측을 그림으로 요약한 것이다.

<그림 6> 미중관계 예측



이러한 분석결과가 실제 정책결정의 입장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미중관계가 장기적 관점에서 세력경쟁 관계로 전개되고 갈등의 가능성 또한 예상된다면, 갈등과 충돌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유지하기 위한 미중의 외교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앨리슨은 구조적 차원에서 미중간 세력전이에 의한 “예정된 전쟁”을 예고하지만 전쟁이 불가피하지는 않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과 같은 외교를 통한 과정의 국제정치 뿐만 아니라 행위자 차원에서 1970년대 키신저-조우언라이 회담에서 공유했던 상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태도’와 ‘행위’에서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Allison 2015). 나아가 미중간 무역분쟁을 해소하고 양국간 무역량을 지속적인 증가세로 유지하기 위한 경제협력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에서의 경제적 이득과 수요는 미중관계를 ‘협력’과 ‘경쟁’의 관계로 유지시키는 압력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미중간 세력정치에 기반하는 ‘경쟁’과 ‘갈등’의 장기적 추세는 외교와 무역의 과정의 국제정치에

의해서, 그리고 행위자 차원에서의 상호이해를 통해서 완화되고 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미중관계의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통합분석예측 모델을 하나의 시론으로서 제시하는데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통합모델을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이 미중관계의 특정 분야를 강조하거나 과장하는 경향을 통제하고 보다 실제의 미중관계를 드러내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안한 시론으로서의 통합분석예측 모델은 세 차원에서의 분석과 예측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정책결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통합해야 하는 한계를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조, 과정, 행위자 수준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장기, 중기, 단기의 시계열적 관점에서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통합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만약 각각의 수준에서 주요 변수들의 추정을 계량화하고, 시계열적 상대적 영향력과 분석수준간 상호작용 효과를 가감한다면 계량화된 미중관계 지수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실용적인 정책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김예경. 2021. “미·중 고위급회담의 주요내용과 한국의 과제.” 『이슈와 논점』 1814호.
- 그레이엄 앨리슨 저, 정혜윤 역. 2018. 『예정된 전쟁』. 서울: 세종서적.
- 이호철. 2017.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한국과 국제정치』 33(1), 39-61.
- 장영희. 2022. “바이든과 시진핑의 화상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성균 차이나 브리프』 62, 42-48.
- 조영남. 2013.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서울: 민음사.

### 중문 자료

- 刁大明. 2021. “修复稳定中美关系的一次新机会.” 『北京日报』 (3月 19日) 第003版.
- 黄仁伟. 2021. “中美“2+2”对话, 回归接触新起点?” 『环球时报』 (3月 16日) 第014版.
- 习近平. 2019. “习近平在庆祝中华人民共和国成立70周年大会上的讲话.” [https://cpc.people.com.cn/n1/2019/1002/c6409\\_4-31383\\_364.html](https://cpc.people.com.cn/n1/2019/1002/c6409_4-31383_364.html)
- 习近平. 2014. “中国必须有自己特色的大国外交.” 中央外事工作会议 (11월), [http://keywords.china.org.cn/2020-01/19/content\\_75629596.html](http://keywords.china.org.cn/2020-01/19/content_75629596.html)
- 薛力. 2014. “一带一路折射的中国外交风险,” FT中文网 (12월30일), <http://www.ftchinese.com/story/001059886?full=y> (2021/05/06 검색).
- 朱峰, 丁纯, 杨成, 毛瑞鹏, 汤蓓, 刘洪钟, 孙海泳. 2021. “拜登政府执政后的重大国际问题笔谈.” 『国际展望』 第2其.
- 中國外交部. 2021. “杨洁篪、王毅同布林肯、沙利文举行中美高层战略对话.” (3月 20日). <https://www.fmprc.gov.cn/web/zyxw/t1862771.shtml>
- 钟飞腾. 2021. “理解美国南海政策转变的三个维度: 霸权衰落、权力转移与美国国内政治.” 『人民论坛·学术前沿』 <https://doi.org/10.16619/j.cnki.rmltxsqy.2021.03.008> (2021/05/06 검색).

### 영문 자료

- Allison, Graham. 2015. “The Thucydides Trap: Are the U.S. and China Headed for War?” *The Atlantic*, September 24, <https://www>.

theatlantic.com/international/archive/2015/09/united-states-china-war-thucydides-trap/406756/ (2018/11/28 검색).

- \_\_\_\_\_. 2020. “The New Spheres of Influence: Sharing the Globe with Other Great Powers.” *Foreign Affairs* 99(2), 30-40.
- Belfer Center. “Thucydides’s Trap Case File.” <https://www.belfercenter.org/thucydides-trap/resources/case-file-graphic> (2022/02/05 검색).
- Blinken, Antony. 2021. “Blinken says it's in U.S. interest to cooperate with China.” *CGTN*, January 28, <https://news.cgtn.com/news/2021-01-28/Blinken-says-it-s-in-U-S-interest-to-cooperate-with-China-XpxrS182uA/index.html> (2021/05/06 검색).
- Calder, Kent E. 2014. “The Traps of Geopolitical Discourse and the Mandate for New Thinking.” *Global Asia* 9(3), 58-62.
- Department of Defense, USA.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1 June 2019,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 Gilpin, Robert. 1987.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ass, Richard N., Elizabeth C. Economy, Stephen A. Orlins, Ely Ratner & Nicholas D. Kristof. 2019.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19 February 2019, <https://www.cfr.org/event/future-us-china-relations> (2021/03/16 검색).
- Han, Zhen & T. V. Paul. 2020. “China’s Rise and Balance of Power Politics.”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1-26.
- Ikenberry, G. John. 2014. “The Illusion of Geopolitics: The Enduring Power of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93(3), 80-90.
- Lee, Hochul. 2013. “China in North Korean Nuclear Crises: 'Interest' and 'Identity' in Foreign Behavio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2(80), 312-331.
- \_\_\_\_\_. 2017. “Power Politics Behind the Transforming Geopolitics in East Asia.” *East Asia: An International Quarterly* 34(4), 307-320.

- McFaul, Michael. 2020. “Cold War Lessons and Fallacies for US-China Relations Today.” *The Washington Quarterly* 43(4), 7-39.
- Mearsheimer, John. 2019. “Bound to Fail: The Rise and Fall of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nternational Security* 43(4), 7-50.
- Rapkin, David & William R. Thompson. 2003. “Power Transition, Challenge and the (Re)Emergence of China.” *International Interactions* 29, 315-342.
- Ross, Robert S. 2020. “It’s not a cold war: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US-China relations.” *China International Strategy Review* 2, 63-72.
- Swaine, Michael D. 2015.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47(Summer), 1-24.
- Tammen, Ronald L., Jacek Kugler, Douglas Lemke, Alan C. Stam III, Mark Abdollahian, Carole Alsharabati, Brian Efirid & A. F. K. Organski. 2000. *Power Transitions: Strategies for the 21<sup>st</sup> Century*. New York: Chatham House.
- Tiezzi, Shannon. 2018. “Another US-China Dialogue Bites the Dust: The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 joins economic talks in the dustbin of U.S.-China relations.” *The Diplomat*, October 02, <https://thediplomat.com/2018/10/another-us-china-dialogue-bites-the-dust/>
- U.S. Department of State, USA. 2021. “Secretary Antony J. Blinken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 Jake Sullivan Statements to the Press.” 19 March 2021, <https://www.state.gov/secretary-antony-j-blinken-and-national-security-advisor-jake-sullivan-statements-to-the-pres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White House. 2017.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https://apps.dtic.mil/dtic/tr/fulltext/u2/1043812.pdf>
- \_\_\_\_\_. 2021.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202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

Abstract

## **US-China Relations: An Integrated Model of Analysis and Prediction**

Hochul Lee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suggest an integrated approach of three levels of ‘structure,’ ‘process,’ and ‘actor’ to analyze and predict US-China relations. At the level of structure, this study finds that a power transition is going on, that a power competition between ‘rebalancing’ and ‘counterbalancing’ is developing, and that conflicting strategic goals are sought for. US-China relations would develop into a competition/conflict-dominant mode in the long-term. But this competition/conflict-dominant relations would be mitigated by resuming diplomacy and increasing trade between two countries. Finally, the competition/conflict-dominant relations would be amplified by the perceptions of each other by the leadership as the only ‘revisionist challenging’ state and a containing state of rising China.

**Key Words:** Integrated Model of Analysis and Prediction, Power Transition, Power Competition, International Politics of Process, Revisionist Challenging State, Containing State of Rising China, Competition/Conflict-Dominant Relations